

1970년대 문학 장과 연작소설의 부흥

용석원*

1. 서론
2. 1970년대 문단과 출판시장
3. 탈바꿈한 연작소설의 위상
4. 결론

국문요약

1970년대 한국 문단과 출판시장은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에 있었다. 1970년대 초반에 문예지가 '봄'을 이루고 출판시장 안에서 대중문학으로서의 신문연재소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문단은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중소설의 상업주의 논쟁, 중편소설의 정립 등의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전개한다. 기성문단과 신세대 계간지 동인 간의 대립,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과 미학적 진지성과의 갈등은 문예지면의 세분화와 문학적 읽을거리의 다종화를 추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학 장의 변동이 단행본 체제와 맞물림에 따라 대중문학 시장이 확장되었다.

1970년대 연작소설의 부흥은 한국 문단과 출판시장의 이해관계에 상응한 결과이다. 이상문학상의 수상이라는 문학 장의 가치부여와 함께 대중성의 척도인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연작소설이 자리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결국, 1970년대 연작소설은 당대 한국 문단과 독자로부터 장편의 과도기라는 기존의 장르인식으로부터 탈피하고 독자적인 소설의 형식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연작소설의 행보는 연작소설의 특질인 ‘분절성’과 ‘계기성’에 의한 것이다. 장르를 ‘보는 방식’으로 정의할 때, 특정 장르는 특정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특정한 화법이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연작소설의 부흥이 갖는 의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과 그에 따른 해석을 당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지평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일조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작소설을 통하여 당대 사회적 문제를 다층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당대적 삶에 대한 이해를 ‘대중적인 것’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도 1970년대 연작소설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연작소설, 1970년대, 문단, 출판시장, 문학 장)

1. 서론

한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 1970년대를 ‘소설의 시대’라 이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당시 한국 문단 내에서 ‘문학의 상업주의 논쟁’이 이루어 졌을 만큼 소설 장르는 질적이고 양적인 강세를 보인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1970년대의 사회적 조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제도교육의 확대에 의하여 대중사회가 궤도에 올랐으며, TV 수상기의 전국적인 보급 정책이 진행

됨에 따라 대중문화의 향유층이 공고해졌다.

한국 문학 역시 이러한 대중화 현상의 자장에 놓여있었다. 1970년대 한국문학은 당대 비평 집단에 의해 ‘대중문학’으로 다루어졌다.¹⁾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위시로, 대중문학으로서의 신문연재소설은 막강한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세대’와 ‘풍속’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반면 한국 문단은 대중문학의 통속성으로부터 미학적 진지성을 고수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대중소설의 상업주의 논쟁’, ‘중·단편 소설에 대한 논의’ 등의 문학 담론을 펼쳤다.

산업화와 대중화 현상, 그리고 대중문학에 대한 문학 장의 투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연작소설은 부흥기를 맞이한다. 사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연작’은 소설의 형식 선택에 있어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1940년대 김남천에게서 소설의 연작화를 살펴볼 수 있지만,²⁾ 1960년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연작의 방식을 활용한 소설 창작은 극소수를 이룬다는 것이 기실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자 사정을 달리한 것이다. 1963년 최인호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을 필두로 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연작소설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들어설 정도로 ‘대중적인 것’³⁾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른다.⁴⁾ 이는 연작소설이 이전과는 달리 각

1) 1970년대 말에 간행된 『대중문학과 민중문학』(김주연 편, 민음사, 1980)을 살펴보면, 각각의 필자들은 ‘민중문학’, ‘대중문학’, ‘도시-산업화 시대의 문학’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당대 소설 문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김춘식이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대중문학에 대한 전망제시를 위해 개념화된 용어라는 점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의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김춘식,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사이 - 60년대 후반-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 2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156-157쪽.

2) 이는 김남천의 『경영』(『문장』, 1940.10)과 그 연작 『맥』(『춘추』, 1941.2)을 이룬다.

3) 이때 ‘대중적인 것’은 불량쇼가 규정한 것과 같이 “바로, 임혀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이미, 미리 알려진 사실”을 의미한다.

4) 이임자가 집적한 한국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1977년 윤홍길의 『아홉 쉼터의

광받는 하나의 확고한 소설의 형식으로서 탈바꿈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작소설의 행보가 특정한 시간-공간의 한계 내에 한정된 특이한 소설의 형식으로써 문학연구사에서 다루어지도록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작소설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역사-사회적인 요소와의 연관성 내에서만, 혹은 연작의 방식이라는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고 있는 경향이 짙다. 그런 까닭에 1970년대 한국 문학의 한 형식으로서의 연작소설에 대한 장르 규명과 그 위상은 현재까지 온전히 해명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1970년대 문학연구라는 범주 내에서 연작소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양적인 왜소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개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연작의 방식을 선택한 작가들과 그들의 소설들을 1970년대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핀 문학사회학 연구가 있다.⁵⁾ 이와 달리 시대적 정황은 제외한 채 연작소설 자체의 장르적 특질에 주목한 논의가 있다.⁶⁾ 끝으로 연작의 형식과 관련하여 개별 작가들과 소설들에서 도출되는 기법적 참신성과 문

구두로 남은 사내』(문학과 지성사)가 소설부 6위를, 1978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문학과 지성사)이 소설부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5) 김우창, 『산업시대의 문학』, 김주연 편,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

김윤식, 『민중주의의 성장과 산업화시대의 소설』,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종철, 『산업화와 문학』, 『창작과 비평』, 1982.

이동하, 『유신시대의 소설과 비판적 지성』,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6) 김지미, 『1970년대 연작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주희, 『한국현대연작소설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권영민, 『연작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이우출판사, 1983.

_____, 『연작의 기법과 연작소설의 장르적 가능성』,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체적 특이성에 주목하여 1970년대 소설의 특질을 살핀 연구가 있다.⁷⁾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1970년대 문학 장 내에서 연작소설이란 장르가 어떻게 인식되어져왔으며, 그 위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별로 답해주는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 연작소설이 문단과 출판시장과의 관계 내에서 연작소설의 행보를 살피고 당대적 인식의 변천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후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1970년대 문단과 출판시장

특정 시기에 부각된 특이한 글쓰기 형식을 결정지은 조건들에 대한 해명은 순문학연구 방법론만으로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몇 가지 당대적 정황을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요소들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소설이 생산되고 소비된 문단과 출판시장의 동향과 함께,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말 현재 국내도서의 총 발행종수는 올해 총 발행종수는 1만2천여 종으로 연말집계가 나온다면 『사상최고』의 작년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7) 김재영, 『연작소설의 장르적 특성 연구-1970년대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 2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문홍술, 『뫼비우스띠와 연작형, 그리고 난장이의 죽음』,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앞의 책.

심지현, 『1970년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이문구의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 28집, 현대소설연구, 2005.

이보영, 『환상적 리얼리즘의 허실-최인호론』, 『현대문학』, 1980.1.

전정석, 『이야기체 소설의 가능성-이문구론』,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앞의 책.

그것은 특히 예년에 없이 호황을 누린 단행본의 활기에 기인한 것으로 그 중에 서도 소위 『70년대 작가』를 중심으로 한 소설 수필류와 일부 언론인의 논픽션물로 된 일군의 베스트셀러들이 큰 몫을 한 결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집물 월부판매의 퇴조와 GNP의 신장이 일반 독자층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 결과이기도 하다.⁸⁾

지난해 가장 많이 출간된 분야는 문학부문으로 3천4백21종이나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발행종수는 1만4천3백75종으로 문학부문이 전체의 40%를 차지, 우리나라 출판의 대종이 문학서임을 알리고 있다. …(중략)…

일부 출판사들은 지난해 어지간한 작품이면 모두 출판해서 작품이 동났기 때문에 올해는 문학단행본의 출간이 퇴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는 소수 젊은 인기작가들에게만 쏠리는 바람에 원로중진들의 작품이 거의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는 풍부하다고 낙관하는 입장도 있다.⁹⁾

위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중반부터 ‘한 권의 책’이라는 물적 단위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당대에 호황을 부리고 있는 단행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소설’과 ‘수필’, 그리고 ‘논픽션’ 등의 문학적 읽을거리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국산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소수 젊은 인기작가들”의 작품이 출판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특정 서사의 소비 편중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이러한 1차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1970년대 한국 출판시장의 구조적 일면이 담겨있다.

우선 “1977년 총 발행종수는 『사상최고』”라는 것은 읽을거리의 증가와 함께 당대 출판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단행본 체제의 활기와 함께, 문학 작품이 “1977년 총 발행종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대 출판시장의 확장이 한 권의 책

8) 한태석, 『단행본 부음의 안팎』, 『동아일보』, 1977.12.29, 5쪽.

9) 『작년 출판종수 중 문학이 40%』, 『경향일보』, 1978.2.8, 5쪽.

이라는 문학적 읽을거리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출판시장이 생산하고 소비한 읽을거리들이 단행본으로 발간된 문학 작품이라면, 문학적 글쓰기 역시 이에 상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한국 문단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강화된다.

1970년대 한국 문단은 기성문단인 '55년대 비평가'와 1960-70년 신세대 비평가 집단인 '4·19 세대' 간의 인정투쟁의 장이었다.¹⁰⁾ 신세대 비평가 집단은 1950년대 이래로 문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단 주도세력이 독점한 월간 문예지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계간지'란 제도를 도입한다. 1966년 계간 『창작과비평』의 창간은 1960년대 문단이 월간 문예지를 중심으로 권력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신세대 문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학 담론을 담보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어 등장한 『문학과지성』, 『상황』, 『한국문학』 등도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이들 계간지 동인들은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걸맞은 문학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계간지를 중심으로 분화되어 간다.¹¹⁾

국내의 문예지붐이 일고 있다. …(중략)…

이러한 현상은 작가의 발표무대가 넓어지고 작품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현상이라 풀이되나 필자동원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각지가 경쟁 속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면 작품이나 기사가 좋아야하고 참

10) 김현이 『한국비평의 기능성』에서 “문학인들은 자신의 내적 필연성에 의해 자신의 문학적 적을 상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성장한다.”고 말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70년대 문학 장은 신·구 문학담론들 간의 투쟁의 장이었다. 김현 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일조각, 1972, 248쪽.

11) 1970년대 계간지 형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환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 과정과 특성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제 30집,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10)를 참조하라.

신한 기획이 요구된다. …(중략)…

그러나 문예지 역시 상업주의에 따른 경쟁 속에 적자생존이라는 현실을 회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느낌이다.¹²⁾

신문학 육십여년사상 “이 같은 성황은 처음”인 문학지분 중 『현대문학』 『월간문학』 『창작과 비평』 등 몇 종을 제하고는 모두 칠십년대에 들어서면서 축출된 것이고 …(중략)… 이 풍성한 문학지 종합지의 발간경쟁으로 작가의 발표 무대는 대폭 확대되어 …(하략)…¹³⁾

○…순문예계간지 『창작과비평』이 이번 봄호로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문예지는 단명한다는 종래의 통념을 깨는 문예지 장수현상은 …(하략)…¹⁴⁾

1970년대 초반 한국 문예지는 개체수의 급증을 보인다. “봄”이란 표현에 걸맞게 불과 1, 2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문단의 유례없는”으로 강조되어진 문예지 붐은 1970년대 중반 문예지의 “장수현상”을 맞이하며, 문예지의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다.

이러한 문예지 개체수의 급증과 이후의 확보된 안정성은 “신문연재소설 중심의 대중성이 통속성으로 분화됨으로써 서민적 대중심리를 낭만적 가상이나 사소함, 순응성으로 유도했다면, 즉자적 대중의 연대성과 현실의식을 자의식적이고 각성적인 것으로 이끈 것이 본격문학 계열의 계몽적 대중주의”¹⁵⁾라는 분화와 경쟁에 의해 추동된 결과인 것이다. 이 분화의 맹점은 상업주의를 앞세운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과 그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미학적 진지성 간의 갈등과 함께, 기성문인과 신세대 계간지 동인 간의 대립에 있다.

1970년대 한국 문단은 신문연재소설을 위시로 한 대중문학으로부터

12) 『출판계의 새 바람 문예지분』, 『경향일보』, 1972.9.18, 5쪽.

13) 김병익, 『사상초유 문학지분 상황극복에의 의지』, 『동아일보』, 1973.11.3, 5쪽.

14) 『단명의 통념깨는 문예지』, 『동아일보』, 1976.3.8, 5쪽.

15) 김춘식, 앞의 책, 157-158쪽.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지켜내야만 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 『한국문학』과 『소설문예』 등의 문예지가 내건 ‘중편소설의 정립’이 그 하나의 대응 방편이라 할 만하다.

중편소설에 대한 한국 문단의 기대와 같은 문학 담론의 대두는 출판 시장으로부터 요구받았던 단행본 체제에 상응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세분화된 문예지 동인들의 문학 담론 영역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출구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학에 대한 ‘정의 내리기’를 통한 문예지의 정체성 확립은 필연적으로 문학 속장 간의 대립과 경쟁을 추동한다. 문단의 각 진영은 서로 자신들의 문학이 ‘진짜’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면서 문학의 원칙을 재설정했으며, 다양한 유파 간에 경계선 설정을 위한 미학적 투쟁의 장이 형성되었다. 이 속장들 간의 경계는 ‘작가의 동원’과 ‘독자의 확보’라는 투쟁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신한 기획’을 통한 차이의 경제학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따라서 문예지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편집 기획들이 상수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문예지면의 확장에 비례하여 각각의 문예지면들은 참신한 기획에 의해서 규정된 변별적인 특질에 따라 세분화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학적 읽을거리의 다종화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적 읽을거리의 다종화가 출판 시장의 확장을 추동한 것이며, 동시에 문학 속장의 분화가 출판시장의 확장을 가능케 한 동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 한국 문단과 출판시장은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3. 탈비꿈한 연작소설의 위상

1970년대 후반 문학적 읽을거리가 당대 문단과 출판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했다. 첫째로 읽을거리는 문학적 특질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글쓰기에 있어서 문학적인 문제 의식이 상기될 만한 내용과 이를 완결시킬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행본으로 꾸러질 수 있을 정도의 원고 분량, 읽을거리의 물적 수량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읽을거리 전체의 내적 통일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1970년대 연작소설이 어떠한 대응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연작소설들이 발표된 문예지면과 단행본 출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1980년대 발표된 연작소설 현황〉¹⁶⁾

순번	작가명	연작명	문예지		단행본	
			발표지면	발표시기	출판사	발행시기
1	한승원	신화	『문학사상』2, 『현대문학』1	71.9-77.5	갑인출판사	1981
2	이문구	관촌수필	『현대문학』1, 『신동아』1, 『월간중앙』2, 『창작과비평』2, 『문학과지성』1, 『세계의문학』1	72.5-77.1	문학과지성사	1977
3	이청준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 남도사람	『뿌리깊은 나무』1, 『문학과지성』3, 『문예중앙』1, 『한국문학』2, 『세대』1, 『세계의문학』1	73.2-81.5	문학과지성사 / 예조각	1981 / 1978
4	조해일	임꺽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현대문학』3, 『문학과지성』2, 『문예중앙』2	73.3-86.12	책세상	1986
5	이순	우리들의 아이	『문학사상』1, 『현대문학』5, 『신동아』1	74.9-81.7	문학과지성사	1981

6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세대』2, 『문학사상』3, 『뿌리깊은 나무』1, 『문학과지성』2, 『한국문학』1, 『대학신문』1, 『문예중앙』1, 『창작과비평』1	75.12-78.6	문학과지성사	1978
7	한승원	안개바다	『한국일보』2	76.12-79.3	문학과지성사	1979
8	윤홍길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창작과비평』1, 『세계의문학』1, 『문학사상』1, 『한국문학』1	77.6-77.10	문학과지성사	1977
9	이문구	우리동네	『한국문학』2, 『창작과비평』2, 『문학과지성』1, 『실천문학』1, 『세계의문학』1	77.11-81.12	민음사	1981
10	문순태	징소리	『창작과 비평』1, 『한국문학』3, 『신동아』1, 『문학사상』1	78.12-80.6	천지서관	1980
11	박완서	엄마의 말뚝	『문학사상』2, 『작가세계』1	79.10-91	일월서각	1982
12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한국문학』2, 『세계의 문학』1	79.12-81.5	민음사	1981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전체 연작소설 중에서

16) 표에 제시된 연작소설들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표는 김재영(앞의 책, 336쪽)이 제시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주요 연작소설'의 목록을 기반으로 한다. 김재영은 주요 연작소설의 선정에 있어서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연작소설의 창작에 작가 자신의 뚜렷한 연작의지가 존재한다. 둘째, 연작소설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에 완전히 통합될 수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연작소설은 독립된 작품이 모여서 더 큰 서사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독자성과 통합성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넷째, 발표의 양식과 '연작집'의 존재의 문제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김재영은 20편의 주요 연작소설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12편만을 다룬 까닭은 1970년대 연작소설이 당대 한국 문학 장과 출판시장의 상호 연관 관계에 얼마나 상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에 있다. 즉, 이 표는 연작소설의 문예지 발표시기가 출판시장이 확장된 1970년대 후반을 경유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주요 연작소설을 다시금 간추린 것이다. 위 표에서 '순번'은 첫 단편이 발표된 시기 순으로 번호를 매긴 것이다. '발표 시기'는 첫 단편과 마지막 단편이 발표된 연도를 밝힌 것이다. '문예지'의 '발표 지면'에서 문예지 옆에 부기된 숫자는 해당 연작소설의 발표 시기 동안 중첩 발표된 횟수를 표시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을 경유하는 작품이 과반수인 12편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출판시장이 요구한 단행본 체재에 연작소설이란 장르가 이에 충분히 상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12편의 연작소설들 가운데서 1977년도에 제정된 '이상문학상'의 수상작이 다수 나온다. 당시 이상문학상의 위상은 남다르다. 이상문학상은 문학상 수상 작품집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다.¹⁷⁾ 그런 의미에서 당대의 이상문학상은 대중문학 시장 내에서 문단의 권위가 현현하는 위치라고 할 만하다. 그러한 이상문학상에 연작소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조세희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가 1978년 제2회 우수상을, 문순태의 『마지막 징소리』가 1980년 제4회 우수상을 수상한다. 마지막으로 박완서의 경우가 이색적이다. 『엄마의 말뚝 1』이 1980년 제 4회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제5회 이상문학상에서 『엄마의 말뚝 2』로 대상을 수상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1977년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베스트셀러 소설부 6위를, 1978년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베스트셀러 소설부 1위에 오른다. 특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듬해 다시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린다.

특히 올해 독서가에 『난장이』 선풍을 일으킨 조세희씨의 창작집은 문학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의 경향을 바꿔놓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작품은 출간 된지 6개월 만에 11판을 발행, 9만부를 판매해 신문학 이후 순수창작집으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¹⁸⁾

17) 이임자가 집적한 한국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살펴보면, 1978년 소설부 10위를, 1980년 역시 소설부 10위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78문화계 하이라이트 (6)』, 『경향일보』, 1978.12.20, 5쪽.

당대에 영향력 있는 문학상의 수상과 베스트셀러의 등극은 작가와 독자로 하여금 연작소설이란 장르를 새로이 보게 만들었을 것이다. 바로 독자적인 문학적 형식의 전형으로 말이다.

연작소설이 유행되고 있다. …(중략)… 연작소설은 동일작가의 독립된 여러 작품의 제목, 또는 주인공이 같다는 외형적 특징과 주제와 소재가 일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략)… 60년대 후반 최인훈과 서기원이 연작소설을 내보였고, 구미에서는 이보다 일찍 나타났었다. 19세기 프랑스 발자크의 『인간희극』이 이 같은 연작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며 …(중략)…

연작소설은 유형상 ①제목과 주제의식이 같은 것 ②제목은 달라도 속편의 성격을 갖는것 ③동일 주인공의 순환 등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연작소설은 우리 사회가 60년대 후반부터 산업사회를 지향,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른 필연적인 소산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 소설이 전통적으로 단편 위주여서 묵직한 주제를 1백장안팎의 단편하나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작가들에게 연작 소설을 낳게 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연작소설은 주인공이 같아서 독자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사회를 심층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독자에게 권태감을 준다는 흠도 있다. …(중략)…

아무튼 테마로 보면 장편소설 같은 연작소설은 장편 지면을 손쉽게 얻을 수 없는 현실적 여건 아래서 한동안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 같다.¹⁹⁾

위 인용문은 1978년 연작소설에 대한 장르 인식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전까지 막연히 읽혀지던 연작소설은 그 위상의 변화와 함께 명확한 개념 규정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작소설은 동일 작가의 독립된 여러 작품의 제목, 또는 주인공이 같다는 외형적 특징과 주제와 소재가 일관된다”라는 연작소설의 장르 규정과 함께 연작소설사의 소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국 연작소설의 시발점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의 연작소설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채

19) 고유석, 『심화 돼가는 연작 소설』, 『경향일보』, 1978.6.8, 5쪽.

롭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연작소설의 유형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기준에 준하여 1978년까지 나온 주요 연작소설을 구분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연작소설이 산업화 시대의 필연적 산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런 이유는 전통적인 한국 문단의 산물인 단편소설이 산업화 시대의 주제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작소설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작소설의 당대적 장르 인식에는 대안적인 성격이 짙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은 급격한 산업화에 의해 복잡다단해진 “사회를 심층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끝으로 당대 장편소설의 지면에 대한 거론이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의 장편소설은 대부분 신문지면이란 매체에 한정되어 생산되었고 소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에 대한 별다른 소양이 없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소설이란 곧 신문연재소설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탓에 당시 한국 문학에 있어서 ‘장편소설=신문소설=통속소설’이라는 하나의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는 이미 193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며, 계속해서 1970년대까지 관철된 현상이다. 신문연재소설은 연재 예고 기사가 나가기가 무섭게 여러 출판사와 영화사가 경합에 의해 입도선매되는 진기한 풍속이 1970년대 말까지 연출되었다.²⁰⁾

그런데 앞서 상술한 것처럼, 당시 신문 이외의 매체로서 방대해진 문예지면이 있었다. 1970년대 문예지가 1930년대 신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지면을 장편에 할애할 수는 없는 까닭에 연작소설의 장르적 특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작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장르 인식은 변하지 않은 채 1980년대로 이행

20) 배노필, 『베스트셀러의 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38쪽.

한다.

단편소설의 긴축성 독창성 교묘성을 살리면서 장편소설처럼 사건을 확대 외연시키는 효과를 얻는 연작소설 형태가 요즘 우리 소설문학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략)…

우리 소설문학에서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소설작법이 머리를 든 것은 속도감 긴장감을 찾는 독자들의 단편소설 선호성과 잡지들의 대형화에 의한 지면확대 및 독자들을 계속 자기세계로 끌어들이려는 작가들의 목적의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중편소설은 그 분량으로 보아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어느 정도 펴보일 수 있고 이 중편소설을 서너 편 묶으면 장편소설로 출판할 수 있다는 계산도 되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전작 장편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중편 또는 연작소설을 쓰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 우선 연작 중편 소설을 쓰는 것은 장편을 쓸 때처럼 긴 호흡이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부분부분을 떼어 미시적으로 관찰 묘사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유기성을 띠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중략)…

연작소설이 이처럼 어느 시간대를 임의로 끊어 심층 묘사할 수 있고 또 한 개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비쳐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가 어렵고 스토리가 중복되기 쉬우므로 이런 점들도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평론가 조남현씨는 말했다.²¹⁾

위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연작소설은 ‘봄’을 이룬다. 그에 따라 연작소설에 대한 장르 인식이 더 심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단편소설의 긴축성 독창성 교묘성을 살리면서 장편소설처럼 사건을 확대 외연시키는 효과를 얻는” 연작소설은 “단편소설 선호성과 잡지들의 대형화에 의한 지면확대”에 의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연작소설이 대중문학 시장에 이상적으로 부합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나

21) 박경렬, 『단편·장편의 효과를 하나로 연작소설 봄』, 『동아일보』, 1981.11.27, 7쪽.

타난다. 우선 “중편소설은 그 분량으로 보아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어느 정도 펴보일 수 있고 이 중편소설을 서너 편 묶으면 장편소설로 출판할 수 있다는 계산도 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장편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중편 또는 연작소설을 쓰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작의 편리성이 제시되어 있는 동시에 “전체적인 구도가 어렵고 스토리가 중복되기 쉬우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연작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있다. 즉 연작소설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숙련과 작가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연작소설이 장편소설에로의 과도기라는 일반적인 인식의 전복을 의미한다. 결국 1980년대에 이르러 연작소설은 장편과 단편소설과 분리된 독자적인 소설의 형식으로서 거듭났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를 거치며 더욱 더 공고해진다.²²⁾ 이제 1970년대 대두된 연작소설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자 소설 형식의 한 갈래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1970년대 연작소설이 당대 어떠한 현실적 조건에 조용하였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연작소설에 대한 장르인식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2) “70년대 중반부터 소설양식의 한 패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연작소설이 최근 작가의 능력을 가늠하는 소설문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중략)… 연작소설은 한꺼번에 많은 지면이 확보되지 않는 점 때문에 자주 이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소설이 점차 짧은 단편위주에서 벗어나 문학의 깊이를 추구해나간다는 뜻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문인들은 말한다”. 고미석, 『뿌리내린 『연작소설』』, 『동아일보』, 1986.2.22, 11쪽.

1970년대 한국 문단과 출판시장은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에 놓여있었다. 1970년대 초반 문예지가 붐을 이루고 대중문학으로서의 신문연재소설이 출판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문단은 자신들의 문화 자본을 고수하기 위해 '대중소설의 상업주의 논쟁', '중편소설의 정립'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전개한다. 기성문단과 신세대 계간지 동인 간의 대립,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과 미학적 진지성과의 갈등은 문예지면의 세분화와 문학적 읽을거리의 다중화를 추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학 장의 변동이 단행본 체제와 맞물림에 따라 대중문학 사장이 확장되었다.

1970년대 연작소설의 부흥은 한국 문단과 출판시장의 이해관계에 상응한 결과이다. 이상문학상의 수상이라는 문단의 가치부여와 함께, 대중성의 척도인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연작소설이 자리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결국, 1970년대 연작소설은 당대 한국 문단과 독자로부터 장편의 과도기라는 기존의 장르인식으로부터 탈피하고 독자적인 소설의 형식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연작소설이 보인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당대 현실 혹은 한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인용한 박경렬의 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느 시간대를 임의로 끊어 심층 묘사할 수 있고 또한 개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비쳐볼 수 있는 장점”에 있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은 연작소설의 특질인 ‘분절성’과 ‘계기성’²³⁾이라는 장르의 변

23) 권영민, 『연작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이우출판사, 1983. 연작성으로서의 분절성과 계기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책을 참조하라.

별적 자질에 의한 것이다.

바흐친의 장르론과 같이 장르를 “현실의 어떤 주어진 부분을 가시화하는 특정한 방식”²⁴⁾, 즉 ‘보는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장르의 현실적 성격과 작가가 맺는 관계는 특별하다. 작가는 장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법을 배운다. 따라서 새로운 재현의 수단은 가시적인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보게 만들고, 새로운 장르를 배우면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고 시야의 범위가 확장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특정 장르는 특정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특정한 화법인 셈이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연작소설의 부흥이 갖는 의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연작소설은 자신의 특질로 삼는 ‘연작성’ 즉, ‘분절성’과 ‘계기성’을 통해 이웃한 산문의 형식인 ‘수기’, ‘르포’, ‘논픽션물’ 등을 자신의 하위 형식으로 통합함에 따라 당대 현실에 대한 다층다면적인 관점과 그에 따른 해석을 당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지평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연작소설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접한 당대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성찰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농촌, 도시, 노동 등에 대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든지, 이문구의 『우리 동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연작소설들이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당대 사회적 문제가 이를 구성하기 용이한 연작소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호명됨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그 문제의식을 ‘대중적인 것’에

24)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476쪽. “장르는 현실을 평가하고 현실은 장르를 명료하게 한다”는 바흐친의 장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부 제7장을 참조하라.

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도 1970년대 연작소설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일보』, 『동아일보』

2. 논문과 단행본

-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30집,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10.
- 김윤식, 『민중주의의 성장과 산업화시대의 소설』,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지미, 『1970년대 연작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주연 편,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
- 김재영, 『연작소설의 장르적 특성 연구-1970년대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 2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 김종철, 『산업화와 문학』, 『창작과 비평』, 1982.
- 김춘식,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사이 - 60년대 후반-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 2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 김주희, 『한국현대연작소설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출판부, 2004.
- _____,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이우출판사, 1983.
- _____,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 계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 배노필, 『베스트셀러의 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 심지현, 『1970년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이문구의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 28집, 현대소설연구, 2005.
- 이보영, 『환상적 리얼리즘의 허실-최인호론』, 『현대문학』, 1980.1.
-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Abstract

The revival of the serial novel and Literary Field in the 1970s

Yong, Seok-Won(Konkuk University)

In the 1970's, Korean literary world and publication market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In the early 1970's, because literary magazine was booming and as a popular literature, a series story in a newspaper had the power, literary world developed various response strategies such as the discussion of commercialism of popular literatures, forming the novella for setting up its cultural capital. The antagonism between existed literary world and members of literary coterie in new generation magazines and the conflict between populism of a series story in a newspaper and aesthetic serious caused subdivision of literature magazines and diversification of read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single book system of publication market, this change in the field of literature caused expanding the market of popular literature.

The revival of a series of novels in the 1970's could be called as results from interests between Korean literary world and publication market. With giving values to the field of literature such as awarding the literary prize of Lee Sang, it could be proven by the fact a series of novels took the position as a best seller.

In conclusion, because it broke a genre awareness as transition period of a full-length novel, it could have the limelight as a unique novel form.

The process of this series of novels was caused by the 'segment' and the 'chance', features of a series of novels. When the method seeing the genre is understood, specific genre could be a specific speech on specific social reality. The meaning of a series of novels at that time is providing multiple views and interpretation on a social reality and expanding the prospect of the awareness. As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at that time with multiple views, because it gave the chance adopting social problems at that time to the public, it is possible to find the fact a series of novels in the 1970's had the meaning.

256 대중서사연구 제28호

(Key Words : a series of novels, 1970's, literary world, publication market, the field of literature)

투고일 :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